

고전 시가 (강세진 교수)

1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靑山(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旻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랑공 더랑공 ㅎ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값대예 올라서 奚琴(히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킨와 잡스와니 내 엇디 ㅎ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나)

췌(창) 내고자 췌(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췌(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찌귀 수돌찌귀 배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똑닥 박아 이 내 가슴에 췌(창)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단어 볼까 하노라.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
- ②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 ③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하고 싶어한다.
- ④ 주어진 삶을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 간다.
- ⑤ 부조리한 삶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당대의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나열을 통해 리듬감을 살려주고 있다.
- ③ 같은 말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답답한 심정을 사방이 막힌 방향으로 비유하고 있다.

3. 밑줄 친 시어 중, (가)의 旻와 같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대신 드러내고 있는 것은?

- ①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리운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②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 ③ 오리의 짧은 다리 학의 다리 되도록
검은 가마귀 해오라비 되도록
향복무강(享福無疆)하샤 억만세를 누리소서.
- ④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같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냐
아마도 길 희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 ⑤ 백구(白駒)야 말 물어 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명구 승지(名區勝地)를 어디 어디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알리면 너와 거기 가 놀리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벼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라들락
 至지菊국송총 至지菊국송 총於어思사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나다

년넙희 밥 싸두고 반찬오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籜약笠립은 씨 잇노라, 綠綠糞사衣의 가져오나
 至지菊국송총 至지菊국송 총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노가 제 좃노가

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父부 생생涯에 아니라나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漁어翁翁을 온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菊국송총 至지菊국송 총於어思사臥와
 四四時時興흥이 흥가지나 秋秋江江이 은듬이라

간밤의 눈 갠 後후에 景경物물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만頃경疏疏瑤瑤리 디희는 千千纒纒玉玉山山
 至지菊국송총 至지菊국송 총於어思사臥와
 仙仙界界계니가 佛佛界界계니가 人人間間간이 아니라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나)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저, 넉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 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景概無窮) 줄을씩고
 -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4.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의 삶에 힘겨워하고 있다.
- ②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 ③ 지난 삶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 ④ 자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⑤ 자연을 도덕적 삶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5. <보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작품 (가)에 후렴구가 들어가니까 어부 생활의 흥취가 더 잘 살아나면서, 시의 장면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어라 이어라’, ‘至지菊국송총 至지菊국송 총於어思사臥와’를 넣어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② 기러기 뚫는 밖에 못 보던 뾰 비는구나
 낚시질도 하려니와 취(取)한 것이 이 흥(興)이라
 석양이 비치니 천산(千山)이 금수(錦繡)로다.
- ③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내 끼인 제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석양(夕陽)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노매.
- ④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게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해움도 역군(亦君恩)이랴.
- ⑤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워 있은들 잇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6. 시화전(詩畵展)에 출품할 작품으로 (가)를 선정하여 내용에 맞게 밑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감이 잘 드러나도록 그린다.
- ②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린다.
- ③ 탈속(脫俗)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그린다.
- ④ 아름다운 어촌(漁村)의 모습을 그린다.
- ⑤ 만선(滿船)을 이룬 어부의 기쁨이 드러나도록 그린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 화자를 ‘벽구기’로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 ② ㉡ : ‘백구’를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나타냈다.
- ③ ㉢ :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였다.
- ④ ㉣ :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그려냈다.
- ⑤ ㉤ : 시간적 배경을 제시해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리밥 찻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싫도록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입이야 부릴 줄이 이시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입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 윤선도, <만흥(漫興)>

(나)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들소나.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은 오늘 하고 욕기(浴沂)는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갓 괴여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향기는 잔에 지고 꽃잎은 옷에 진다. 술단지가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소동(小童) 아이에게 주막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가에 혼자 안자, 명사(明沙)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뫼이 그것인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펼쳤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쳐나고,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사울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허튼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물아일체 : 자연과 하나됨.
- * 한중진미 :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
- * 답청 : 봄에 들에나가 풀을 밟는 놀이.
- * 조수 : 물고기를 낚는 놀이.
- * 미음완보 :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조림.
- * 연하일휘 : 안개와 저녁놀.
- * 단표누항 : 가난한 삶.

8. (가)와 (나)의 공통점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교훈을 발견해 내고 있다.
- ⑤ 자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9. 다음은 (나)의 시어를 활용하여 (가)의 화자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단표누항(簞瓢陋巷)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
- ② 화자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
- ③ 화자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을 벗으로 여기고 있어.
- ④ 화자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어.
- ⑤ 화자는 백년행락(百年行樂)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군.

10. ㉠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그리던 입이 나를 찾아 온다 해도 이보다 반갑진 않을 거야.
- ② 그리던 입이 나를 찾아 오는데 반갑지 않을 사람은 없어.
- ③ 그리던 입이 나를 찾아 와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군.
- ④ 그리던 입이 나를 찾아 온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 ⑤ 그리던 입의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반가울 텐데.

11. <보기>는 ㉡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드러난 것은?

— < 보 기 > —

감정 이입이란, 자신의 감정을 대상 속에 이입시켜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본래 감정 이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유정물로 만들기도 한다.

-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떨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②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③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④ 이랑공 더랑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⑤ 어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12. ㉡~㉤ 중, (가)의 그 남은 여남은 입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올세라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① 설은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 작자 미상, <가시리>

(나)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나리며 헤뜨며 바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잠을 얼핏드니
정신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육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퇴려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 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던된 ① 계성(鷄聲)의 잠은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입이 어디 간고?
결의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② 그림자 날 좃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여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밖에 번듯이 비치리라.
각시님 달이야커니와 ③ 꽃은 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

- * 모침(茅簷) : 초가집
- * 반벽청등(半壁靑燈) : 벽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
- * 저근덧 : 잠깐 사이에
- * 헤뜨며 : 허둥거리며
- * 바니니 : 서성대니
- * 오던된 계성(鷄聲) : 방정맞은 닭소리
- * 식여지어 : 죽어서

(다)
내 언제 신(信)이 없어 님을 언제 속였관대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올 뜻이 전혀 없네.
④ 추풍(秋風)에 지는 잎 소리가 난들 어이 하리오.

- 황진이 -

* 월침삼경(月沈三更) : 달이 기울어진 한밤 중

13. (가)~(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복과 대조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개인의 정서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 ③ 일정한 음보의 반복으로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민요적 성격으로 여러 사람이 향유할 수 있었다.
- ⑤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14. (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을 슬퍼하며 삶을 체념하고 있다.
- ② 주관적 감정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자기 희생과 절제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슬픔 속에서도 떠나가는 입을 축복하고 있다.
- ⑤ 이별의 상황에서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15.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받치고 살 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 안도현, <사랑한다는 것>

- ① (나)의 화자는 기대감에 차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 ② (나)는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보기>는 입과 함께 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 ③ (나)는 의지적인 목소리가 느껴지지만, <보기>는 애절한 슬픔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 ④ (나)는 입을 그리워하며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보기>는 입과 함께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⑤ (나)는 입이 화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보기>는 화자가 입에게 희생하려는 마음을 알 수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입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 ② ㉡은 입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 ③ ㉢은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어 소망의 실현을 의미한다.
- ④ ㉣은 이별의 상황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⑤ ㉤은 외로운 심정을 달래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17. (다)를 <보기>와 같은 과정으로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감상하기 전 활동**

- ㉠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여 본다.
- ㉡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지닌 기녀 문학의 대표자, '청산리 벽계수야~' 등의 시조를 읽어 본 기억을 되살려 봄

▶ **감상하는 활동**

- ㉢ 작가가 화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를 알아 본다.
- ㉣ 달(月), 잎 소리 등을 통해 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함을 알 수 있었음
- ㉤ 화자의 심리 변화를 추리해 본다.
- ㉥ '원망→기다림→기대감→안타까움'으로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파악함

▶ **감상한 후 활동**

- ㉠ 화자에게 편지를 써 보며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
- ㉡ 화자에게 :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길수록 더 깊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멀리 떠나가 버린 이성 친구는 없지만, 지난 봄 멀리 떠나가신 할머니의 얼굴이 달빛처럼 다가오더군요.
- ㉢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을 찾아 공통된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
- ㉣ '동짓(冬至)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 춘풍(春風)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 어룬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뽀구뽀 퍼리라.'를 읽고 애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음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孤臣冤淚)를 비 삼아 띄워다가
님 계신 구중 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어떠리

- 이항복 -

(나)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멸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가던 새 : 갈던 밭, 또는 날아가는 새.

* 잉무든 장글란 : 이끼 문은 쟁기를, 날이 무디어진 병기(兵器)를.

(다)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슨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여 넌 갈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드시 자심(滋甚)하노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 동창(月明東窓) 혼자 앉아
삼사경(三四更)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 잠 못 들어 한하는 그런 사람 있건마는
② 무상 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는고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발을 풀어내어
드문드문 질긔 바늘 두어 땀 뜨듯 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아래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슨 요수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검치두덕 : 욕심이 언덕처럼 쌓인.

* 무상 불청(無常不請) : 괜히 청하지도 않았는데.

* 언하당 : 그런 생각을 하자 마자 바로.

18.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학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학은 자연을 모방하는 행위이다.
- ② 문학은 즐거움을 얻으려는 놀이이다.
- ③ 문학은 도덕적 교훈을 담는 그릇이다.
- ④ 문학은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 ⑤ 문학은 내면의 욕구를 표출하는 도구이다.

19. (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높은 봉'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표상이다.
- ② '고신 원루'에는 화자의 심리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③ '구름'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
- ④ '비'는 화자의 정서를 '님'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 ⑤ '구중 심처'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공간이다.

20. 다음은 <보기>를 고려하여 (나)를 영상물로 만들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이 노래의 화자를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 실연당한 사람, 현실에서 소외된 지식인 등으로 보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불려지던 고려 시대가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때임을 감안하면, 화자를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한 농민으로 볼 수도 있다.
* BGM : 배경 음악 SE : 음향 효과

① 장면1	② 장면2	③ 장면3	④ 장면4	⑤ 장면5
초췌한 모습의 주인공이 산으로 피신하는 장면	자고 일어나 새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산 아래의 밭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	밤에 가족을 떠올리며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장면	누군가가 날아가는 새를 향해 던진 돌에 맞아 아파하는 장면
* 카메라가 산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따라간다.	* BGM : 느린 장단의 음악 * SE : 새 울음 소리	* 과거에 평화롭게 밭을 갈며 살던 모습 (O.L.)	* 가족과의 단란했던 시절(O.L.) * BGM: 슬픈 곡조의 음악	* 고통스러워 하는 얼굴(C.U.)

21. <보기>를 (다)의 화자가 쓴 일기의 일부라고 할 때, 작품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 < 보 기 —

애고 애고 내 신세야.
①왜 이리도 할 일이 많단 말인가? ②오늘 낮에도 이 일 저 일에 치여서 바느질을 저녁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③그런데 마음에 쏠리지 막상 바느질을 시작하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④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잠 때문에 눈은 절로 감기고 눈앞이 뿌옇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⑤가난이 원수라서 자고 싶어도 잠이 안오는 이 신세가 정말 처량하구나.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2. 발상 및 표현이 ㉠과 유사한 것은?

- 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에 진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죠?
- ②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도 있다던데, 비야 너는 왜 우리 수재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니?
- ③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해는 시나브로 서산에 누엿누엿 지려 하고 있네.
- ④ 나뭇가지가 하나일 때는 손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 개가 묶인 경우에는 쉽지 않다.
- ⑤ 오늘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 점심으로는 칼국수 말고 다른 걸 먹는 게 어때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솥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뉘노는다.

㉡년남희 밥 싸두고 반찬오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籊약篋립은 씨 잇노라 綠靑囊紗衣의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無무心심흔 白鶻鷗구는 내 좃는다 제 좃는다

水슈國국의 ㄱ을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萬만頃경澄滄波파의 슬크지 容容興興여호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人인間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부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을 받아 번쩍이네.

응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고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네.

낙월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

- 정약용, <타맥행(打麥行)>

(다)

논 밭 갈아 기음* 매고 뵈잡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
서 삭다리* 마른 섶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슭* 부시고* 곱방대를 툯툯 떨어 ㉠뉘담배
뉘여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 사설시조 -

* 기음 : 김, 논 밭에 난 잡풀

* 신들메고 :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밭에 잡아매고

* 버려 : 버리어. 날카롭게 갈아

* 삭다리 : 삭정이. 산 나무에 붙은 죽은 가지

* 도슭 : 도시락

* 부시고 : 비우고

2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와 (다)에는 생활인의 바쁜 일상사가 나타난다.
- ③ (나)와 (다)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④ (나)와 (다)의 시적 화자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가)~(다)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24. <보기>를 참고로 (가)를 이해할 때, 밑줄 친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_____ < 보 기 > _____

윤선도는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다. 강직한 성품으로 당쟁에 휘말려 여러 차례 귀양살이를 했다. '어부사시사'는 작가가 말년에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조이다. 그의 작품에 드러난 흥취의 이면에는 세속적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5.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을 써 보았다.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나)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담을 것
 -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유지할 것
 -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낼 것

- ① 끌어올린 그물에서 고기를 떼어내는 어부는 구릿빛 피부로 건강미가 넘쳤다. 만선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자로 보였다. 나 역시 내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의 부자인 셈이다.
- ② 이윽고 경기는 시작되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우람한 사내들이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날아가는 공을 향해 질주하는 선수들의 허벅지는, 근육이 살아 꿈틀거리는 듯 하였다. 공이 터지고 관중은 환호하였다. 그 속에 섞여 함께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그들이 부러웠다.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요, 영웅이었다.
- ③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미 얻은 권력과 명예를 욕망 때문에 다 잃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언젠가는 다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몸을 더럽힌단 말인가? 욕망이란 밑 빠진 항아리 같은 것이 아니던가!
- ④ 주방장은 체격이 좋았다. 공처럼 큼직한 밀가루 반죽을 다루는 데 이골이 나 있었다. 늘이고, 펼치고, 두드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두 팔에는 울퉁불퉁 근육이 솟아올랐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으며, 국수 가닥을 뽑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다. 자신의 일에 심취해 있는 그를 보니, 허황된 꿈에 복권이나 사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 ⑤ 노인은 냉수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방망이를 깎기 시작하였다. 익숙한 손놀림은 신명까지 느끼게 하였다. 몽둥이가 방망이로 변하는 과정은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다듬기를 수 차례, 오히려 내가 더 조바심이 날 무렵에서야 방망이를 내게 주었다. 그 분야야말로 진정한 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6.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비되는 두 사물을 견주어 대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② 대상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 ③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달픈 생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④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② ㉠~㉣은 시적 화자의 풍류를 나타낸다.
- ③ ㉡은 '綠囊囊'의와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 ④ ㉢은 흥겨운 노동과 연결되는 소재이다.
- ⑤ ㉣은 노동 후의 한가로움을 드러낸다.

【해설지】

1. ②

(가)에서는 현실적 괴로움과 고뇌로 인해 갈등하는 서정적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답답한 심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 모두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2. ④

(나)에서는 일상적인 사물을 나열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고, '창 내고 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가 지니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을 사방이 꼭 막힌 방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①

(가)의 '새'는 화자가 지니고 있는 괴로움과 비애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①에서도 화자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외기러기'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4. ②

(가)는 4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정경과 어부 생활의 흥취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역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작품이다. 모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감탄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5. ②

'어부사시사'의 후렴구는 노 젓는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해 줌으로써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어부 생활의 흥취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② 역시 아름다운 어촌에서 낚시질을 하며 즐기는 시적 화자의 흥이 잘 드러나므로, '어부사시사'의 후렴구와 잘 어울린다. 실제로 ②는 '어부사시사'의 <추사(秋詞) 4>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연에 동화된 무욕의 경지가 잘 드러나는 월산대군의 시조이다. 고요하고 정결한 분위기가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거리가 있다.
- ③ 비오는 날의 외로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므로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관련이 없다.
- ④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에 대한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맹사성의 '강호사시'로,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거리가 멀다.
- ⑤ 이현보의 '어부가'로 나라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거리가 멀다.

6. ⑤

(가)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고 기뻐하는 어부의 모습을 노래했다기보다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하고 풍류적인 어부 생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또 (가)의 화자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⑤와 같이 고기를 많이 잡고 기뻐하는 어부의 모습은 내용상 맞지 않는다.

7. ②

㉠은 '백구'와 화자가 한몸이 된 물아일체의 경지가 잘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를 '백구'로 의인화한 것이 아니라, '백구'와 '푸른 버들 숲'을

통하여 아름다운 봄 경치를 노래했다.

- ③ 대구를 통해 앞뒤로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이치에 어긋나게 표현하는 역설과는 무관하다.
- ④ 물의 흐름이 잘 느껴지므로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⑤ 아쉬움의 정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의 정서가 드러난다.

8. ③

(가), (나)는 모두 세속의 번뇌로부터 벗어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자연 친화적인 풍류와 소박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9. ⑤

(가)의 시적 화자는 소박한 생활을 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풍류를 즐기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에서도 발견되는데, (나)에서 '백년행락(百年行樂)'은 그러한 풍류를 오래도록 누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를 '경계'한다고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10. ①

㉠은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 해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먼 뱀'보다 반갑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설의적 표현에 기대어 드러낸 구절이다.

11. ②

<보기>의 설명을 ㉠에 적용하자면, '새'는 화자 자신의 흥겨운 마음이 이입되어 노래 부르며 교태를 부리는 대상이다. (나)의 화자는 '새'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으로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에서도 '새'에 화자의 고독감이라는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12. ⑤

'그 밖의 남은 일'이란, 화자가 지향하는 풍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 욕심을 의미한다. (나)에서 '공명(功名)'은 '부귀(富貴)'와 함께 세속적인 입신 양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가 이와 유사하다.

13. ③

주어진 세 작품은 각각 시대를 달리하고 있지만 일정한 운율을 느낄 수 있다. '가시리'에서는 332조의 3음보, '속미인곡'에서는 4음보, '내언제'에서는 4음보의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정답은 ③번이다.

14. ③

이 작품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슬퍼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특히 3, 4연에서는 희생과 절제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정답은 ③번이다.

15. ②

가사 '속미인곡'에서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꿈 속에서 임을 만나 하소연하고자 하며, 죽어서 낙월(落月)이 되어 임 계신 곳을 비추고, 임이 그리워 흐르는 눈물은 비가 되어 임을 적시고 싶다는 표현 등은 임을 향한 화자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현대시 안도현의 '사랑한다는 것'에서는 사랑이란 함께 나누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은 ②번이다.

16. ②

㉠은 서러운 임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은 가련한 자아의 모습을 의미하고 ㉢은 임에게 밀착하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은 대상에 대한 기대와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있다. 정답은 ②번이다.

17. ②

문학 작품의 감상 과정을 '감상 전중후' 활동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제대로 감상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감상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데 ⑥에서는 자연물에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②번이다.

18. ⑤

(가)는 임금의 은총을 잃은 슬픔, (나)는 삶의 고뇌와 비애, (다)는 일에 짓눌리며 잠을 참아가야 하는 삶의 괴로움 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은 모두 시적 화자가 억눌린 내면 욕구를 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⑤와 같은 문학에 대한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피하기]

세 작품은 모두 인생을 소재로 하여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독자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줄 목적으로 창작한 것도 아니다.

19. ①

시적 화자는 유배지로 가는 길에 철령에서 바라다 본 '구름'을 보고, 그것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자신의 입장과 같이 보여, 그를 청자로 삼아 자신의 슬픔을 '비'로 만들어 임금에게 전달해 달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봉'은 화자가 유배지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적 장치이다.

20. ⑤

작품 내용과 영상물의 장면을 대응시키면 각 연은 차례대로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 5연의 내용은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맞히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는,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맞아 슬퍼하고 있는데, 장면 5는 '날아가는 새를 향해 던진 돌이라고 하여, '돌'을 방향과 목표가 정해진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서 내용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21. ⑤

이 작품은 일에 치여 힘든 여성 화자가 쏟아지는 잠으로 인해 겪는 괴로움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침에도 잠이 오고 밤에도 바느질을 하려니 또 잠이 오는 상황 속에서, 의인화한 잠을 청자로 설정하여 원망하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나, 가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작품 속에 나오지 않는다.

22. ②

㉠은 '잠'을 의인화하여, 자신과는 대조적 처지에 있는,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나 가지, 왜 원하지 않는 자신에게 오느냐는 원망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우리 수재민들이 자신들을 농민들과 대조하여 '비'를 원망하고 있는 ②이다.

[오답피하기]

- ① 청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③ 같같이 바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제안을 하고 있다.

23. ④

(가)는 시적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 (나)는 농부의 삶에서 느끼는 건강성, (다)는 분주한 일상사에서 갖는 삶의 여유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의 시적 화자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 ① (가)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 ② (다)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 ③ (나)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 ⑤ 해당 작품이 없다.

24. ⑤

'어부사시사'에서 보여주는 자연 친화적 태도의 이면에는 세속적인 공간으로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라는 표현에서 '인간'은 현실 세계를 뜻하고 "멀수록 더욱 좋다"는 말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말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②, ③, ④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5. ④

(보기)의 조건에서 제시한 첫 번째 주제 의식은 몸과 정신이 하나 된 건강한 삶의 회복이라 할 수 있고, 화자의 정서는 대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이다. ④의 주장장은 (나)의 농부처럼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화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허황된 꿈을 꾸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아닌 자부심이 나타난다.
- ②, ⑤ 대상만 묘사하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나타난다.

26. ②

(다)의 표현상의 특징은 농부의 일상사를 장황하리 만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실시조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7. ②

㉠ '연잎에 썬 밥'은 '청약립' '녹사의' 등과 어울려 양반 윤선도가 소박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를 나타내는 소재이고, ㉡ '막걸리'는 흥겹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자 농부의 소박한 삶과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며, ㉢ '잇담배'는 농부가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휴식을 갖는 여유로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풍류를 드러내는 것은 ㉠만 해당되므로 ②가 정답이다.

암기 test #01 (강세진 교수)

1

1. 다음의 로마자를 적으라.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ㅞ	ㅟ	ㅚ	ㅜ

3)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ㅃ	ㅆ	ㅉ

4) 파찰음

ㅈ	ㅊ	ㅌ

5) 마찰음

ㅅ	ㅆ	ㅎ

6) 비음

ㄴ	ㄹ	ㅇ

7) 유음

ㄹ

[해설지]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ㅚ	ㅜ	ㅠ
<u>a</u>	<u>eo</u>	<u>o</u>	<u>u</u>	<u>eu</u>	<u>i</u>	<u>ae</u>	<u>e</u>	<u>oe</u>	<u>wi</u>

2) 이중 모음

ㅑ	ㅓ	ㅖ	ㅠ	ㅞ	ㅚ	ㅜ	ㅝ	ㅠ	ㅞ	ㅜ
<u>ya</u>	<u>yeo</u>	<u>yo</u>	<u>yu</u>	<u>yae</u>	<u>ye</u>	<u>wa</u>	<u>wae</u>	<u>wo</u>	<u>we</u>	<u>ui</u>

3)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u>g, k</u>	<u>kk</u>	<u>k</u>	<u>d, t</u>	<u>tt</u>	<u>t</u>	<u>b, p</u>	<u>pp</u>	<u>p</u>

4) 파찰음

ㅈ	ㅉ	ㅊ
<u>j</u>	<u>jj</u>	<u>ch</u>

5) 마찰음

ㅅ	ㅆ	ㅎ
<u>s</u>	<u>ss</u>	<u>h</u>

6) 비음

ㄴ	ㅁ	ㅇ
<u>n</u>	<u>m</u>	<u>ng</u>

7) 유음

ㄹ
<u>r, l</u>